

주말부부의 결혼만족도와 가족건강성

- 주말부부 남편과 아내의 비교 -

A Study on Marital Satisfaction and Family Strengths in Commuting Couples

- Comparison of Husband and Wife in Commuting Couples -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최정혜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Choi, Jeong-Hye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arital satisfaction and family strengths among 134 commuting couples (268 individuals) living in Korea, who have been commuting for at least six months.

The major findings obtained from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degree of marital satisfaction of the husband and wife in commuting couples was 5.12 and 4.96, respectively, on a scale of 0-7.0. The important factors of marital satisfaction in the husband were the number of children, self-esteem and the degree of coping strategy, whereas for the wife they were the educational degree, kind of job, self-esteem and degree of coping strategy.

2) The degree of family strengths of husband and wife in commuting couples was 3.75 and 3.77, respectively, on a scale 0-5.0. The significant factors of the family strengths in the husband were relied on the person who moved, meeting cycle of conjugal, conjugal periods, self-esteem and the degree of coping strategy, whereas for the wife they were the educational degree, religion, kind of job, commuting periods, the person who moved, meeting cycle of conjugal, self-esteem and the degree of coping strategy.

3) There was a close correlation between the marital satisfaction and family strengths in the husband and

Corresponding Author: Jeong-Hye, Choi,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The principal researcher of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900 Gazwa-dong, Jinju, 660-701, Korea Tel: 82-55-751-5639 Fax: 82-55-756-5637 E-mail: jhchoi7@nongae.gsnu.ac.kr

wife of commuting couples.

주제어(Key Words): 주말부부(commuting couples), 결혼만족도(marital satisfaction), 가족건강성(family strengths), 관련변인(related variables)

1. 서론

현대사회의 급격한 산업화·도시화는 가족형태의 다양성과 기능적 변화를 유도하게 되었으며, 주말부부라는 새로운 유형의 가족형태를 창출하게 되었다(김은경, 1999; 최정혜, 2002). 이는 직업상의 이유로 주중에는 부부가 떨어져 살다가 주말이면 만나는 새로운 가족형태의 주말부부 가족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주말부부는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될 전망이다. 주말부부는 형성 초기에는 주로 남편의 지방근무라는 직업적인 이유로 남편은 지방에, 부인과 자녀는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주말에 만나는 남편 외유형이 많았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전문직 여성의 취업 증가 및 직업이동성의 증대로 인해 자신의 직업적 성취를 위하여 주중에는 가족과 떨어져 살다가 주말에 서로 만나는 부부왕래형의 주말부부가 많아져 초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증가하고 있다(김경은·정옥분, 1998; 김은경, 1999; 한유미, 2003).

주말부부는 자녀를 데리고 살지 않는 어느 한쪽 배우자는 주중에 독신형태의 생활을 하여 자유로운 반면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다른 쪽 배우자는 편부 또는 편모로서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심리적인 부담감을 더 가질 수 있다. 즉 한 배우자의 장점이 다른 배우자에게는 단점으로 작용하게 되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김은경, 1999). 또한 주말부부는 주말에만 부부가 함께 모이는 독특한 생활양식으로 인해 친구나 친지와와의 접촉기회가 줄어들며, 주말이면 그동안 함께 하지 못한 상대 배우자에 대한 기대가 서로 높아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기 쉽고 이로 인해 다양한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다(문숙재·윤소영, 2003; 이기숙·손태홍, 2004; 채옥희, 1998). 맞벌이 주말가족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Winfield(1985)는 맞벌이 주말부부들이 겪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전통적인 결혼생활에 자신들

을 적용시키려는데 있다고 주장하여 주말부부의 갈등 측면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주말부부라는 생활양식 때문에 어떤 갈등이 생겨난다면 이는 결혼만족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주말부부의 결혼만족도 연구는 주말부부가 새로운 가족형태로서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필요한 연구라고 본다. 또한 주말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관련 변인 연구는 결혼만족도 향상 방안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어떤 변인들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주말부부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시작되어 축적된 선행연구결과는 많지 않은 편이나 그 연구 경향을 보면 부부간 역할 갈등과 결혼만족도, 아동의 사회적 적응 및 양육, 가계의 경제구조, 생활시간 등에 관한 부분적인 연구들(김경은·정옥분, 1998; 김은경, 1999; 김태현·박숙자, 1992; 문숙재·윤소영, 2003; 옥경희, 1999; 이기숙, 1999; 채옥희, 1998; 한유미, 2003; 허경옥, 2003; 허영숙, 1994; Kim, 2001)이다.

한편 가족건강성(family strength)이란 가족의 건강한 정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가족건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와 관련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건강가족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우리가 가족을 건강하게 육성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은 가족의 정서적·관계적 기능을 통하여 안정감과 진정한 전인적 인간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존재이며 인간의 사회성·공동체성은 가족생활을 통하여 길러지기 때문이다(유영주, 2004a).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은 부부가 주중에는 서로 떨어져 산다는 독특한 생활양식으로 인해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은 어느 정도 인지, 그리고 유의한 관련변인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보는 것은 주말부부의 특성을 규명할 수 있는 의의 있는 연구라 생각된다. 건강가족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이래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이 가족의 심리·사회적 특성이나 가족관계적 측면에서 건강성을 파악하거나(유영주, 2001), 건강성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어은주·유영주, 1995; 유영주, 2004b; 지영숙·이영호, 1998; 최희진·유영주, 2003)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 경향에서 알 수 있듯이 주말부부에 대한 결혼만족도와 가족건강성을 연계한 연구는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증가하는 주말부부의 삶의 형태를 감안하여 주말부부의 결혼만족도와 가족건강성을 남편과 아내별로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는 앞으로 주말부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주말부부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각각 어떠하며, 관련변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주말부부 남편과 아내의 가족건강성 정도는 각각 어떠하며, 관련변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주말부부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와 가족건강성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주말부부의 결혼만족도와 관련변인

1) 주말부부의 결혼만족도의 개념

결혼만족도란 결혼생활 전반에 대해 부부의 행복과 만족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이나 태도를 가늠하는 척도를 말하는 것으로 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부부관계의 여러 양상들 중 결혼관계에서의 다양한 현상들을 파악하기 위해 개념화한 결혼만족도의 연구는 결혼 및 가족분야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어온 주제이다(정현숙, 1997; 최규련, 1988; 홍성례·유영주, 2000; Bowman,

1990).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은 초기에는 주로 사회인구학적인 변인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어왔으나, 점점 그 관련변인을 가족의 심리적 태도나 부부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변인들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는 경향이다(조유리·김경신, 2000).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말부부의 결혼만족도란 “주말부부 개인의 감정에 초점을 두고 결혼관계에 대한 개인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주말부부의 결혼만족도와 관련변인

주말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허영숙(1993)은 주말부부 여교사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 연구에서 주말부부 여교사들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경향임을 보고하였다. 김경은·정옥분(1998)은 주말부부 어머니의 결혼적응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연구에서 주말부부 아내들이 남편과 떨어져 산 기간, 남편의 방문 빈도, 접촉빈도 등이 주부의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 즉 남편과 떨어져 산 기간이 짧을수록, 자녀수가 1명보다는 2명일 때, 남편이 집에 자주 올수록, 남편과 하루에 1번 이상 전화통화를 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김은경(1999)은 주말부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 연구에서 주말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관련변인으로 본인의 직업에 대한 애착, 부인의 직장생활에 대한 남편의 지지, 부인의 직장생활 지속에 대한 남편의 지지, 자녀수, 취업동기, 연락빈도, 가사조력자의 유무, 역할갈등, 성생활 만족도, 방문빈도, 부부가 떨어져 지낸 기간, 주관적 권력, 친정·시댁·친구의 주말부부 유형에 대한 지지 등 15개 관련 변수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주말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변인으로 직장생활에 대한 배우자의 지지도와 주말부부에 대한 친구의 지지 등만 나타났고, 그 외 변인들은 결혼만족도의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말부부에 대한 국외연구로서는 주말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와의 만족도는 일반 부부에 비해 낮고, 남편이 아내보다 훨씬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Bunker, Zubek, Vanderslice, Rice, 1992).

한편 주말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관련변인으로 자아존중감과 대처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자아존중감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변인으로 밝혀진 바 있으므로(조유리·김경신, 2000; 최규련, 1998) 주말부부의 결혼만족도에도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예측 때문이다. 대처전략 또한 선행연구에서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갈등대처행동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조유리 외, 2000), 회피적 대처방안을 사용할 경우 결혼만족도가 낮다고 보고 된(최규련, 1995; Christensen & Heavy, 1993)바 있으므로 관련변인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2.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과 관련 변인

1)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의 개념

최근 가족학연구에 있어서 가족을 건강가족적 관점(Family Strengths Perspective)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가족의 긍정적인 측면과 가족의 장점을 강화하고 가족관계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관점이다(유영주, 2004; Olson & DeFrian, 2003).

DeFrian(2003)은 건강가족을 가족 간의 상호작용의 질이 가족 개개인의 심리적 안녕(psychological well-being)에 기여하는 가족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유계숙(2004)은 가족관계에 대한 성원들의 만족도가 높고,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가족이라 보았다. 유영주(2004a)는 가족원 개개인의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원 간의 상호작용(의사소통, 의사결정, 스트레스 대처)이 원만하여 집단으로서의 가족체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상의 개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이란 "주말부부 가족원 개개인의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원 간의 상호작용이 원만하여 집단으로서의 가족체계를 잘 유지하는 가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과 관련변인

현재 주말부부를 대상으로 한 가족건강성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가족건강

성에 관한 선행 연구를 통해 연구경향 및 관련 변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건강한 가족은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잘 견뎌내며(유영주, 2001; Brigman et al, 1986), 종교가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된 바 있다(Stinnet et al, 1979; 어은주·유영주, 1995; 윤세은, 2000). 홍성례·유영주(2001)는 남편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 연구에서 가족건강성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어은주 등(1997)은 도시주부의 가족건강성이 높고, 가족건강성의 유의한 변인으로 결혼만족도, 가족의 정신적 건강, 남편의 직업, 부인의 직업, 결혼지속년수 등을 보고한 바 있다.

한편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에 관련된 변인으로 자아존중감과 대처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자아존중감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가족건강성과 정적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므로(어은주·유영주, 1997; 최규련 1995; 유영주, 2001; 최희진·유영주, 2001)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에도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대처전략 역시 선행연구에서 가족건강성이 대처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된 바 있으므로(최정혜, 2004) 대처전략을 관련변인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주말부부의 결혼만족도와 가족건강성의 관련 변인으로 주말부부의 연령, 교육수준, 종교, 자녀수, 직업, 가정의 월 수입 정도, 주중 가족형태, 가사보조유무, 주말부부로 지낸 기간, 주말에 이동하는 사람, 부부가 만나는 주기, 결혼지속년수, 자아존중감, 대처전략 사용정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직업 때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각자의 주거를 두고 일주일에 3일 이상을 떨어져서 지내는 전문직, 관리직 그리고 사무직에 종사하는 주말부부이다. 본 연구는 주말부부가 가지는 특성을 파악하고 연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소한 6개월 이상을 주말부부로 생활하고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예비조사는 2002년 3월 11일부터 4월 8일까지 4주 동안 주말부부 30쌍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한 후 수정한 설문지로 2002년 5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전국을 대상으로 유통표집과 능인이 표집을 통해 주말부부 200쌍에게 배포되었으며, 134쌍 총 268명이 최종분석대상이 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주말부부의 연령은 남

편의 경우 40대가 가장 많고(45.5%) 아내는 30대가 가장 많은 것(48.5%)로 나타났다. 주말부부의 교육 수준은 대학졸업이 과반수이상(53.7%)으로 가장 높고 대학원 졸업이 그 다음으로(26.9%) 나타나 연구 대상자의 높은 학력수준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조사대상이 전문직과 교사에 치중된 까닭으로 보인다. 주말부부의 종교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 종교를 가진 사람보다 조금 더 많았다. 주말부부의 자녀수는 2명이 가장 많았으며(62.6%), 만이의 연령은 7세 이하가 가장 많았다(28.4%). 주말부부의 직업은 남편과 아내 모두 교사·연구직이 가장 많았으며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구 분 | | 남편(134) | 아내(134) | 전체(268) | 구 분 | 전체(268) | |
|---------------------|-----------|-----------|----------|-----------|-------------------|--------------|-----------|
| 연 령 | 20대 | 4(3.0) | 7(5.2) | 11(4.1) | 자 녀 수 | 1명 | 76(28.4) |
| | 30대 | 48(35.8) | 65(48.5) | 113(42.1) | | 2명 | 168(62.6) |
| | 40대 | 61(45.5) | 45(33.6) | 106(39.6) | | 3명 이상 | 24(9.0) |
| | 50대 | 21(15.7) | 17(12.7) | 38(14.2) | | | |
| 교육수준 | 고졸 | 5(3.7) | 21(15.7) | 26(9.7) | 만이연령 | 7세이하 | 76(28.4) |
| | 전문대졸 | 8(6.0) | 18(13.4) | 26(9.7) | | 초등생 | 70(26.1) |
| | 대학졸 | 74(55.2) | 70(52.2) | 144(53.7) | | 중·고생 | 68(25.4) |
| | 대학원졸 | 47(35.1) | 25(18.7) | 72(26.9) | | 대학생 이상 | 54(20.1) |
| 종교유무 | 없음 | 73(54.5) | 66(49.3) | 139(51.9) | 부부가 만나는 기간 | 매주말 | 200(74.6) |
| | 있음 | 61(45.5) | 68(50.7) | 129(48.1) | | 2주마다 | 54(20.2) |
| | | | | | | 3주마다 | 14(5.2) |
| 직 업 | 교수·전문직 | 24(17.9) | 11(8.2) | 35(13.1) | 가정의 월수입 정도 | 200만원 미만 | 14(5.2) |
| | 교사·연구직 | 52(38.8) | 65(48.5) | 117(43.7) | | 200-300만원 미만 | 70(26.1) |
| | 관리직(과장이상) | 31(23.1) | | 31(11.6) | | 300-400만원 미만 | 82(30.6) |
| | 사무직 | 27(20.1) | 18(13.4) | 45(16.7) | | 400-500만원 미만 | 60(22.4) |
| | 주부 | | 40(29.9) | 40(14.9) | | 500만원 이상 | 42(15.7) |
| 주중 가족형태 | 혼자 | 116(86.6) | 29(21.6) | 145(54.1) | 주말 부부로 산 기간 | 1년 미만 | 60(22.4) |
| | 자녀와 | 10(7.5) | 78(58.2) | 88(32.9) | | 1-2년 | 68(25.4) |
| | 자녀와 부모 | 5(3.7) | 13(9.7) | 18(6.7) | | 3-5년 | 62(23.1) |
| | 자녀와 친정부모 | | 14(10.4) | 14(5.2) | | 6-9년 | 54(20.1) |
| | 기타 | 3(2.2) | | 3(1.1) | | 10년 이상 | 24(9.0) |
| 평소 집안일 도우는 사람 | 없다 | 101(75.4) | 90(67.2) | 191(71.3) | 주말에 이동하는 사람 | 남편 | 212(79.1) |
| | 있다 | 33(24.6) | 44(32.8) | 77(28.7) | | 아내 | 22(8.2) |
| | | | | | | 양쪽 모두 | 34(12.7) |
| 돕는사람 | 고용인 | 6(18.2) | 8(18.2) | 14(18.2) | 결혼 지속년수 | 5년 이하 | 48(17.9) |
| | 부모 | 20(60.6) | 16(36.4) | 36(48.6) | | 6-9년 | 46(17.2) |
| | 처부모 | 5(15.1) | 18(40.9) | 23(29.8) | | 10-14년 | 68(25.4) |
| | 기타 | 2(6.1) | 2(4.5) | 4(5.2) | | 15-19년 | 52(19.4) |
| | | | | | | 20년 이상 | 54(20.1) |

(43.7%), 그 다음으로 남편은 관리직(23.1%), 아내는 전업주부(29.9%)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수입 정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가 가장 많았으며(30.6%), 40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22.4%)과 500만원 이상(15.7%)을 합하면 38.1%로 나타나 주말부부의 월수입정도가 400만원 이상에 가장 많은 분포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주중 가족형태를 보면 '혼자' 사는 경우가 과반수이상(54.1%)으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는 '자녀와' 사는 것(32.9%)으로 나타나 주말부부의 과반수이상인 주중에는 독신 형태로 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자녀를 데리고 사는 배우자는 전체의 1/3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부부별로 보면, 남편의 경우 '혼자'가 절대적으로 높게(86.8%) 나타난 반면 아내의 경우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가 가장 높게(58.2%) 나타나 주말부부 남편은 주중에 대부분 독신형태의 삶을, 아내는 대부분 자녀를 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부부가 만나는 시간은 '매 주말'이 가장 높게 나타나(74.6%) 대부분의 주말부부가 주말마다 규칙적으로 만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소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약 1/3정도(28.7%)로 나타났으며 아내(32.8%)가 남편보다(24.6%)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내가 자녀를 맡고 있는 비율이 더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은 '시부모'가 가장 많았으며(45.8%), 그 다음이 '친정부모'(29.8%), 고용인(18.2%) 순으로 나타났다. 부부별로 보면 남편은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고(60.6%), 아내의 경우는 '친정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40.9%)가 '시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36.4%)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나 주말부부 남편은 시댁의 도움을 주로 받고 있고 주말부부 아내는 친정부모의 도움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말에 이동하는 사람은 '남편'이 대부분(79.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말부부로 지낸 기간은 1-2년이 가장 많고(25.4%), 그 다음은 3년-5년 사이(23.1%)로 나타났다. 그러나 '6-9년'이 20%, 10년 이상도 9%로 나타나 전체의 약 1/3 정도는 장기적인 주말부부 상태를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결혼지속년수는 10년-14년 사이가 가장 많고(25.4%), 그 다음은 20년 이상(20.1%), 15-19년(19.4%) 순으로 나타나 결혼생활이 10년 이상인 주말부부가 전체의 2/3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질문지로서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인 배경을 알아보는 일반 문항과 주말부부의 결혼만족도 척도, 가족건강성 척도, 스트레스 대처전략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의 내용 및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결혼만족도 척도는 슈(Schumm)과 그의 동료들이 제작한 KMSS(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1980)을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매우 불만족'의 1점에서 '매우 만족'의 7점까지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α = .96으로 나타났다.

가족건강성 척도는 어은주·유영주(1995)의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즉 선행연구의 가족건강성 척도를 4영역 23문항으로 만들어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수정하여 총 20문항을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결코 그렇지 않다'에 1점에서 '항상 그렇다'에 5점까지 점수를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α = .96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전략 척도는 최정혜(2004)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스트레스 대처전략으로 사용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정말 그렇다'에 5점까지 점수를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나타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α = .83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Rogenberg와 Krause & Tran의 척도를 토대로 문항을 수정하여 만든 최정혜의 척도(2004)를 사용하였다. 총 4문항을 본 조사에 사용하였으며,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에서

'정말 그렇다'에 5점을 주는 리커트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전체 4문항 중에서 2문항은 긍정적인 문항을 사용하고 2문항은 부정적인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통계처리 시 역산하여 점수를 내었다.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α = .74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SPSS WIN 10.0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신뢰도, 평균, t-test, 일원변량분석, Duncan Multiple Range Test, 상관관계 등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주말부부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 및 관련 변인

<연구문제 1>을 규명하기 위해서 먼저 주말부부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 정도를 백분율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에서와 같이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는 주말부부 남편의 경우 '만족'이 가장 높고(42.5%), 다음이 '보통'으로(23.9%) 나타났다. 아내의 경우도 '만족'이 가장 높고(30.6%), 그 다음이 '보통'(26.1%) 순으로 나타나 주말부부 남편이 아내보다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배우자에 대한 만족' 정도는 주말부부 남편은 '만족'이 가장 높고(38.1%), 그 다음 '조금 만족'(22.4%)으로 나타난 반면 아내는 '만족'(32.1%), '보통'(20.1%) 순으로 나타나 주말부부 남편이 아내보다 배우자에 대한 만족이 조금 더 높음을 보여 준다. 또한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 정도는 남편의 경우 '만족'이 가장 높고(38.8%), 그 다음이 '보통'(23.1%) 순이며, 아내의 경우도 '만족'(29.1%), '보통'(23.1%)순으로 같은 경향을 보였다.

주말부부의 결혼만족도를 평균 비교로 차이검증

<표 2> 주말부부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

(N=134쌍)

| 변 인 | | 남 편 | | 아 내 | |
|-----------------|-------|-----|------|-----|------|
| | | N | % | N | % |
|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 | 매우 불만 | 1 | .7 | 0 | 0.0 |
| | 불 만 | 3 | 2.2 | 4 | 3.0 |
| | 조금 불만 | 11 | 8.2 | 16 | 11.9 |
| | 보 통 | 32 | 23.9 | 35 | 26.1 |
| | 조금 만족 | 18 | 13.4 | 24 | 17.9 |
| | 만 족 | 57 | 42.5 | 41 | 30.6 |
| 배우자에 대한 만족 | 매우 만족 | 12 | 9.0 | 14 | 10.4 |
| | 매우 불만 | 0 | 0.0 | 1 | .7 |
| | 불 만 | 4 | 3.0 | 6 | 4.5 |
| | 조금 불만 | 8 | 6.0 | 15 | 11.2 |
| | 보 통 | 27 | 20.1 | 27 | 20.1 |
| | 조금 만족 | 30 | 22.4 | 26 | 19.4 |
|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 | 만 족 | 51 | 38.1 | 43 | 32.1 |
| | 매우 만족 | 14 | 10.4 | 16 | 11.9 |
| | 매우 불만 | 1 | .7 | 0 | 0.0 |
| | 불 만 | 1 | .7 | 6 | 4.5 |
| | 조금 불만 | 13 | 9.7 | 13 | 9.7 |
| | 보 통 | 31 | 23.1 | 31 | 23.1 |
| | 조금 만족 | 24 | 17.9 | 29 | 21.6 |
| | 만 족 | 52 | 38.8 | 39 | 29.1 |
| | 매우 만족 | 12 | 9.0 | 16 | 11.9 |

을 해본 결과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주말부부 남편과 아내의 총체적 결혼만족도는 7점 만점에 남편은 평균 5.12점, 아내는 4.96점으로 나타나 모두 중간점인 4점을 넘어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만족도가 중간점수 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난 김은경(199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주말부부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말부부 남

<표 3> 주말부부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 평균비교

(N=134쌍)

| 구 분 | 남 편 | | 아 내 | | t |
|-----------------|------|------|------|------|------|
| | M | SD | M | SD | |
| 총체적 결혼만족도 | 5.12 | 1.20 | 4.96 | 1.31 | 1.10 |
|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 | 5.10 | 1.29 | 4.93 | 1.32 | 1.12 |
| 배우자에 대한 만족 | 5.18 | 1.22 | 4.97 | 1.41 | 1.30 |
|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 | 5.09 | 1.25 | 4.97 | 1.34 | .75 |

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이나 '배우자에 대한 만족'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 역시 같은 경향을 보여 주말부부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 정도는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말부부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관련된 변인은 다음 <표 4>와 같다. 주말부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자녀수($p<.05$), 자아존중감($p<.01$), 스트레스 대처전략 사용정도($p<.001$) 등으로 나타났다. 즉 주말부부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자녀수가 1명이나 3명일 때가 2명일 때 보다 더 높게 나타나 자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주말부부라는 특성 때문에 자녀수가 너무 적거나 많지 않은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 본 결과는 자녀수에 따라 결혼만족도가 차이난다는 선행연구(김경은외, 1998)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말부부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자아존중감이 높을 경우 높게 나타나 주말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자아존중감이 관련변인임을 보여주었으며, 선행연구(조유리·김경신, 2000; 최규련, 1998)를 지지하는 경향이다. 주말부부 남편의 스트레스 대처전략 사용정도가 높은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대처전략이 결혼만족도의 관련변인임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선행연구(조유리 등, 2000)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주말부부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아내의 교육수준($p<.05$), 직업($p<.01$), 자아존중감($p<.001$), 스트레스 대처전략 사용정도($p<.001$)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말부부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결혼만족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교육수준이 결혼만족도의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은 김은경(1999)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여 후속연구를 통해 연구가 더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내의 직업이 교수·전문직일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전문직일 경우 주부의 취업이 결혼만족도를 높인다는 연구(조유리·김경신, 2000)와 일치하는 맥락이라 하겠다. 주말부부 아내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조유리·김경신, 2000; 최규련, 1998)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주말부부 아내의 대처전략 사용정도가 높은 경우 결혼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조유리외, 2000; 최규련, 1995; Bowman, 1990; Christensen & Heavy, 1993)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2. 주말부부 남편과 아내의 가족건강성 및 관련 변인

<연구문제 2>를 규명하기 위하여 주말부부 남편과 아내의 총체적 가족건강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주말부부 남편의 가족건강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75, 아내는 3.77로서 중간점인 3점보다 높은 점수로서 주말부부 남편과 아내의 가족건강성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결과는 관련 선행연구(어은주·유영주, 1997; 홍성례·유영주, 2001)보다 조금 더 낮은 경향이며, 주말부부 남편과 아내의 총체적 가족건강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말부부 남편과 아내의 가족건강성을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 '가족원간의 유대'가 가장 높고,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아내는 '가족원간의 유대'와 '가족문제해결 수행능력'이 공동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 순으로 나타났다. 즉 주말부부 아내의 가족건강성 하위영역은 '가족원간의 유대'에 못지않게 '가족문제해결 수행능력'도 매우 강함을 알 수 있으며,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는 남편과 같은 경향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주말부부 아내가 '가족문제해결 수행능력'에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은 아내가 대부분 자녀를 데리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해결력이 높아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 중에서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이 남편과 아내 모두 3번째 순위로 나타난 것은 주말부부의 생활양식을 살펴볼 때 부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측면이라고 여겨진다.

<표 4> 주말부부 남편과 아내의 관련 변인에 따른 결혼만족도

(N=134쌍)

| 변 인 | | 남 편 | | | | 아 내 | | | |
|------------------|--------------|-----|------|-------|---|-----|------|--------|---|
| | | N | M | F(t) | D | N | M | F(t) | D |
| 연 령 | 20대 | 4 | 5.33 | .19 | | 7 | 5.81 | 1.97 | |
| | 30대 | 48 | 5.14 | | | 65 | 4.84 | | |
| | 40대 | 61 | 5.05 | | | 45 | 5.13 | | |
| | 50대 | 21 | 5.25 | | | 17 | 4.57 | | |
| 교육수준 | 고졸 | 5 | 5.00 | .34 | | 21 | 4.33 | 3.51* | A |
| | 전문대졸 | 8 | 4.83 | | | 18 | 4.48 | | B |
| | 대학졸 | 74 | 5.09 | | | 70 | 5.17 | | B |
| | 대학원졸 | 47 | 5.24 | | | 25 | 5.23 | | C |
| 종교유무 | 없음 | 73 | 5.21 | 8.82 | | 66 | 4.79 | -1.37 | |
| | 있음 | 61 | 5.02 | | | 68 | 5.11 | | |
| 자 녀 수 | 1명 | 38 | 5.47 | 3.92* | B | 39 | 5.30 | 2.09 | |
| | 2명 | 84 | 4.90 | | A | 83 | 4.79 | | |
| | 3명 | 12 | 5.55 | | B | 12 | 4.94 | | |
| 직 업 | 교수·전문직 | 24 | 5.43 | .69 | | 11 | 5.55 | 4.96** | C |
| | 교사·연구직 | 52 | 5.08 | | | 65 | 5.27 | | B |
| | 관리직(과장이상) | 31 | 4.98 | | | 18 | 4.30 | | A |
| | 사무직·공무원 | 27 | 5.11 | | | 40 | 4.58 | | A |
| | 주부 | | | | | | | | |
| 가정 월수입 정도 | 200만원 미만 | 7 | 5.14 | 1.41 | | 7 | 4.48 | 1.27 | |
| | 200-300만원 미만 | 35 | 4.74 | | | 35 | 4.68 | | |
| | 300-400만원 미만 | 41 | 5.21 | | | 41 | 5.03 | | |
| | 400-500만원 미만 | 30 | 5.42 | | | 30 | 5.29 | | |
| | 500만원 이상 | 21 | 5.16 | | | 21 | 5.10 | | |
| 주중 가족형태 | 혼자 | 116 | 5.14 | .90 | | 29 | 5.03 | .94 | |
| | 자녀와 | 10 | 4.63 | | | 78 | 4.81 | | |
| | 자녀 및 부모 | 5 | 5.33 | | | 13 | 5.21 | | |
| | 자녀 및 처부모 | | | | | 14 | 5.36 | | |
| | 기타 | 3 | 5.78 | | | | | | |
| 평소 집안일 돕는 사람 | 없다 | 101 | 5.19 | 1.11 | | 90 | 4.87 | -1.10 | |
| | 있다 | 33 | 4.93 | | | 44 | 5.14 | | |
| 주말부부로 지낸 기간 | 1년 미만 | 30 | 5.33 | .51 | | 30 | 5.20 | .82 | |
| | 1-2년 | 34 | 5.22 | | | 34 | 5.11 | | |
| | 3-5년 | 31 | 5.00 | | | 31 | 4.79 | | |
| | 6-9년 | 27 | 5.03 | | | 27 | 4.69 | | |
| | 10년 이상 | 12 | 4.89 | | | 12 | 4.85 | | |
| 주말에 이동 하는 사람 | 남편 | 106 | 5.04 | 1.29 | | 106 | 4.86 | 1.15 | |
| | 아내 | 11 | 5.33 | | | 11 | 5.15 | | |
| | 양쪽 모두 | 17 | 5.51 | | | 17 | 5.33 | | |
| 부부가 만나는 주기 | 매 주말 | 100 | 5.21 | 1.22 | | 100 | 5.04 | 1.14 | |
| | 2주마다 | 27 | 4.96 | | | 27 | 4.61 | | |
| | 3주마다 | 7 | 4.57 | | | 7 | 4.94 | | |

〈표 4〉 계속

(N=134쌍)

| 변 인 | | 남 편 | | | | 아 내 | | | | |
|---------|--------|-----|------|----------|---|-----|------|----------|---|---|
| | | N | M | F(t) | D | N | M | F(t) | D | |
| 결혼지속년수 | 5년이하 | 24 | 5.37 | .84 | | 24 | 5.28 | 1.54 | | |
| | 6-9년 | 23 | 4.77 | | | 23 | 4.63 | | | |
| | 10-14년 | 34 | 5.21 | | | 34 | 5.24 | | | |
| | 15-19년 | 26 | 5.18 | | | 26 | 4.92 | | | |
| | 20년 이상 | 27 | 5.05 | | | 27 | 4.64 | | | |
| 자아 존중감 | 하 | 26 | 4.74 | 5.41** | A | 28 | 4.13 | 10.63*** | A | |
| | 중 | 74 | 5.01 | | | 71 | 4.98 | | | B |
| | 상 | 34 | 5.67 | | | 35 | 5.56 | | | |
| 대처전략 사용 | 하 | 30 | 4.42 | 11.82*** | A | 28 | 4.07 | 13.79*** | A | |
| | 중 | 94 | 5.22 | | | 91 | 5.05 | | | B |
| | 상 | 10 | 6.30 | | | 15 | 6.02 | | | |

* p<.05, ** p<.01, ***p<.001

〈표 5〉 주말부부 남편과 아내의 가족건강성 비교

(N=134쌍)

| 구 분 | 남 편 | | 아 내 | | t |
|---------------|------|-----|------|-----|------|
| | M | SD | M | SD | |
| 총체적 가족건강성 | 3.75 | .54 | 3.77 | .61 | -.31 |
| 가족원간의 유대 | 3.86 | .57 | 3.86 | .63 | -.02 |
|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 3.76 | .59 | 3.79 | .67 | -.41 |
|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 | 3.56 | .56 | 3.58 | .67 | -.24 |
| 가족문제해결 수행능력 | 3.83 | .60 | 3.86 | .62 | -.48 |

주말부부 남편과 아내의 가족건강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관련 변인은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다. 남편의 가족건강성은 주말에 이동하는 사람(p<.01), 부부가 만나는 주기(p<.001), 결혼지속년수(p<.05), 자아존중감(p<.001), 스트레스 대처전략 사용정도(p<.001) 등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주말부부 남편의 가족건강성은 주말에 이동하는 사람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남편과 아내 '양쪽 모두' 이동할 때 가장 가족건강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아내' 이동, '남편' 이동 순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은 주말부부들이 필요에 따라 '부인'이나 '양쪽 모두' 이동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주말부부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 남편과 아내 중 어느 쪽이 움직여도

가족건강성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음을 의미하며, 남편만 이동하는 고정관념에 대한 변화를 시사한다 하겠다. 주말부부 남편의 가족건강성은 주말부부가 만나는 주기에 따라 차이를 보여 부부가 매주 만날 때 가족건강성이 높게 나타났다. 주말부부 남편의 가족건강성은 결혼지속년수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즉 결혼지속년수 '5년 이하' 일 때와 '10년-14년' 일 때 가족건강성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15-19년', '6-9년', '20년 이상' 순으로 나타나 결혼지속년수가 '20년 이상' 일 때 가족건강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본 결과는 결혼생활 20년 이상 된 주말부부 남편이 주말부부라는 상황에 가장 갈등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주말부부 남편의 가족건강성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난 결과(어은주·유영주, 1997; 최규련, 1995; 최희진·유영주, 2001)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으며 가족건강성에 있어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말부부 남편의 가족건강성은 스트레스 대처전략 사용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조유리·김경신, 2000; Bowman, 1990; Christensen & Heavy, 1993)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한편 주말부부 아내의 가족건강성에 유의한 차이

<표 6> 주말부부 남편과 아내의 관련 변인에 따른 가족건강성

(N=134쌍)

| 변 인 | | 남편(134) | | | | 아내(134) | | | |
|------------------|----------------|---------|------|---------|---|----------|--------------|---------|--------|
| | | N | M | F(t) | D | N | M | F(t) | D |
| 연 령 | 20대 | 4 | 3.94 | | | 7 | 3.93 | | |
| | 30대 | 48 | 3.78 | | | 65 | 3.77 | | |
| | 40대 | 61 | 3.75 | .40 | | 45 | 3.78 | .29 | |
| | 50대 | 21 | 3.66 | | | 17 | 3.68 | | |
| 교육수준 | 고졸 | 5 | 3.29 | | | 21 | 3.41 | | A |
| | 전문대졸 | 8 | 3.58 | | | 18 | 3.64 | | B |
| | 대학졸 | 74 | 3.81 | 1.84 | | 70 | 3.83 | 4.54** | B |
| | 대학원졸 | 47 | 3.73 | | | 25 | 4.01 | | C |
| 종교유무 | 없음 | 73 | 3.71 | | | 66 | 3.63 | | |
| | 있음 | 61 | 3.81 | -1.02 | | 68 | 3.91 | -2.69** | |
| 자 녀 수 | 1명 | 38 | 3.74 | | | 38 | 3.83 | | |
| | 2명 | 84 | 3.74 | .63 | | 84 | 3.72 | 1.01 | |
| | 3명 | 12 | 3.92 | | | 12 | 3.97 | | |
| 직 업 | 교수·전문직 | 24 | 3.77 | | | 11 | 4.03 | | C |
| | 교사·연구직 | 52 | 3.81 | | | 65 | 3.93 | | B |
| | 관리직(과장이상) | 31 | 3.66 | .49 | | | | | |
| | 사무직·공무원 주부 | 27 | 3.73 | | | 18 40 | 3.48 3.59 | 5.15** | A B |
| 가정월수입 정도 | 200만원 미만 | 7 | 3.81 | | | 7 | 3.81 | | |
| | 200-300만원 미만 | 35 | 3.59 | | | 35 | 3.68 | | |
| | 300-400만원 미만 | 41 | 3.72 | 1.56 | | 41 | 3.73 | .65 | |
| | 400-500만원 미만 | 30 | 3.90 | | | 30 | 3.90 | | |
| | 500만원 이상 | 21 | 3.84 | | | 21 | 3.85 | | |
| 주중 가족형태 | 혼자 | 116 | 3.73 | | | 29 | 3.86 | | |
| | 자녀와 | 10 | 4.05 | | | 78 | 3.69 | | |
| | 자녀 및 부모 | 5 | 3.70 | 1.10 | | 13 | 3.78 | 1.61 | |
| | 자녀 및 처부모 기타 | 3 | 3.80 | | | 14 | 4.04 | | |
| 평소 집안일 돕는 사람 | 없다 | 101 | 3.78 | | | 90 | 3.72 | | |
| | 있다 | 33 | 3.66 | 1.99 | | 44 | 3.88 | -1.49 | |
| 주말부부로 지낸 기간 | 1년 미만 | 30 | 3.85 | | | 30 | 3.87 | | B |
| | 1-2년 | 34 | 3.89 | | | 34 | 3.96 | | B |
| | 3-5년 | 31 | 3.61 | 1.55 | | 31 | 3.49 | 2.69* | A |
| | 6-9년 | 27 | 3.71 | | | 27 | 3.76 | | B |
| | 10년 이상 | 12 | 3.62 | | | 12 | 3.75 | | B |
| 주말에 이동 하는 사람 | 남편 | 106 | 3.68 | | A | 106 | 3.71 | | A |
| | 아내 | 11 | 4.01 | 4.62** | B | 11 | 3.89 | 3.03** | B |
| | 양쪽 모두 | 17 | 4.03 | | B | 17 | 4.07 | | B |
| 부부가 만나는 주기 | 매 주말 | 100 | 3.85 | | B | 100 | 3.86 | | B |
| | 2주마다 | 27 | 3.48 | 7.19*** | A | 27 | 3.56 | 5.11** | A |
| | 3주마다 | 7 | 3.39 | | A | 7 | 3.26 | | A |

〈표 6〉 계속

(N=134쌍)

| 변 인 | | 남편(134) | | | | 아내(134) | | | |
|--------------|--------|---------|------|----------|---|---------|------|----------|---|
| | | N | M | F(t) | D | N | M | F(t) | D |
| 결혼 지속년수 | 5년이하 | 24 | 3.87 | 2.47* | B | 24 | 3.98 | 1.77 | |
| | 6-9년 | 23 | 3.58 | | A | 23 | 3.54 | | |
| | 10-14년 | 34 | 3.87 | | B | 34 | 3.85 | | |
| | 15-19년 | 26 | 3.85 | | B | 26 | 3.74 | | |
| | 20년 이상 | 27 | 3.55 | | A | 27 | 3.73 | | |
| 자아존중감 | 하 | 26 | 3.45 | 16.63*** | A | 28 | 3.29 | 20.35*** | A |
| | 중 | 74 | 3.68 | | B | 71 | 3.77 | | B |
| | 상 | 34 | 4.14 | | C | 35 | 4.17 | | C |
| 대처전략 사용정도 | 하 | 30 | 3.44 | 19.89*** | A | 28 | 3.16 | 32.92*** | A |
| | 중 | 94 | 3.77 | | B | 91 | 3.86 | | B |
| | 상 | 10 | 4.54 | | C | 15 | 4.39 | | C |

*p<.05, **p<.01, ***p<.001

를 보이는 변인은 아내의 교육수준(p<.01), 종교유무(p<.01), 직업(p<.01), 주말부부로 지낸 기간(p<.05), 주말에 이동하는 사람(p<.01), 부부가 만나는 주기(p<.01), 자아존중감(p<.001), 스트레스 대처전략 사용정도(p<.001)등으로 나타났다. 즉 주말부부 아내의 교육수준이 높으면 가족건강성이 높았으며, 종교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가족건강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종교변인은 선행연구(Stinnet et al., 1979; 어은주·유영주, 1995; 윤세은, 2001)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주말부부 아내의 가족건강성은 직업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여, 아내의 직업이 교수·전문직일 때 가족건강성이 가장 높고 사무직·공무원일 때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어은주 등, 1997)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주말부부 아내의 가족건강성은 주말부부로 지낸 기간이 '1년-2년 사이' 일 때 가장 높고 '3년-5년 사이' 일 때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여기서 주말부부 아내의 가족건강성이 주말부부로 지낸 기간 '3년-5년 사이'에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이 시기가 아내의 자녀출산으로 양육의 어려움이 커지는 단계이며 또한 부부의 권태기와 맞물려 있는 시기이므로 적응이 힘들어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도 추론할 수 있겠다.

주말부부 아내의 가족건강성은 주말에 이동하는 사람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양쪽 모두' 이동할

때 가장 가족건강성이 높고 다음으로 '아내', '남편' 순으로 나타났다. 주말부부 아내의 가족건강성은 남편과 만나는 주기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부부가 매주 만날 때 가족건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서 주말부부가 자주 만나는 것이 가족건강성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주말부부 아내의 가족건강성은 자아존중감이 높을 경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난 결과(어은주·유영주, 1997; 최규련, 1995; 최희진·유영주, 2001)와 일치하며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주말부부 아내의 가족건강성은 스트레스 대처전략 사용이 높으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관련 선행연구(조유리·김경신, 2000; Bowman, 1990; Christensen & Heavy, 1993)와도 일치하는 경향이다.

3. 주말부부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와 가족건강성과의 관계

〈연구문제 3〉을 규명하기 위하여 먼저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 〈표 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말부부 남편과 아내의 가족건강성에 관련된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00~.62의 상관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

<표 7> 주말부부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가족건강성과의 상관관계

(N=134쌍)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 1 | 1.00 | | | | | | | | | | | | | | |
| 2 | .02 | | | | | | | | | | | | | | |
| 3 | .12 | .25** | | | | | | | | | | | | | |
| 4 | -.58** | .09 | -.14 | | | | | | | | | | | | |
| 5 | .18* | .06 | .05 | -.08 | | | | | | | | | | | |
| 6 | .06 | -.01 | -.12 | -.02 | .14 | | | | | | | | | | |
| 7 | .05 | -.00 | -.05 | -.04 | .14 | .43** | | | | | | | | | |
| 8 | .04 | .02 | .12 | -.07 | .30** | -.09 | -.10 | | | | | | | | |
| 9 | .02 | .06 | -.06 | .02 | .07 | .14 | .05 | -.07 | | | | | | | |
| 10 | -.18* | -.07 | -.02 | .24** | .14 | -.09 | -.03 | .22* | -.03 | | | | | | |
| 11 | .00 | .11 | .47** | -.18* | .19* | -.17 | -.18* | .42** | -.07 | .09 | | | | | |
| 12 | .24** | -.08 | .19* | -.21* | .25** | -.06 | -.03 | -.11 | .07 | -.05 | -.07 | | | | |
| 13 | .07 | .17* | .13 | .10 | -.08 | -.04 | -.13 | -.11 | -.05 | .03 | -.01 | .22* | | | |
| 14 | .08 | -.08 | -.09 | -.08 | .13 | .04 | -.09 | -.12 | .14 | -.13 | -.03 | .26** | .39** | | |
| 15 | .10 | .91 | .06 | -.06 | .16 | .06 | -.10 | -.16 | .25* | -.30** | -.10 | .44** | .45** | .62** | 1.00 |

* p<.05, ** p<.01

1: 교육수준 2: 종교 3: 자녀수 4: 직업 5: 월수입정도 6: 가족형태 7: 도움유무 8: 만나는 주기 9: 이동하는 사람
10: 만나는 주기 11: 결혼지속년수 12: 자아존중감 13: 대처전략 14: 결혼만족도 15: 가족건강성

<표 8> 주말부부 아내의 결혼만족도와 가족건강성과의 상관관계

(N=134쌍)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 1 | 1.00 | | | | | | | | | | | | | | |
| 2 | .06 | | | | | | | | | | | | | | |
| 3 | -.11 | .25** | | | | | | | | | | | | | |
| 4 | -.48** | -.01 | .13 | | | | | | | | | | | | |
| 5 | .27** | .10 | .04 | -.33** | | | | | | | | | | | |
| 6 | .08 | -.12 | -.05 | -.05 | .09 | | | | | | | | | | |
| 7 | .30** | -.07 | -.19* | -.36** | .24** | .47** | | | | | | | | | |
| 8 | -.06 | .16 | .13 | .06 | .27** | -.01 | .04 | | | | | | | | |
| 9 | .19* | .13 | -.04 | -.18* | .04 | -.08 | .07 | -.03 | | | | | | | |
| 10 | -.10 | .03 | .02 | .15 | .16 | .14 | .01 | .24** | .34 | | | | | | |
| 11 | -.25** | .18* | .45** | .25** | .16 | -.21* | -.30** | .44** | -.06 | .14 | | | | | |
| 12 | .48** | .10 | .01 | -.24** | .17* | .11 | .20* | -.08 | .19* | -.12 | -.16 | | | | |
| 13 | .08 | .04 | -.18* | -.23** | .05 | .13 | .12 | -.07 | .13 | .02 | -.20* | .39** | | | |
| 14 | .25** | .12 | -.14 | -.26** | .17 | .08 | .10 | -.14 | .13 | -.10 | -.10 | .37** | .42** | | |
| 15 | .31** | .23** | .01 | -.27** | .10 | .08 | .12 | -.13 | .21* | -.27** | -.07 | .49** | .58** | .61** | 1.00 |

* p<.05, ** p<.01

1: 교육수준 2: 종교 3: 자녀수 4: 직업 5: 월수입정도 6: 가족형태 7: 도움유무 8: 만나는 주기 9: 이동하는 사람
10: 만나는 주기 11: 결혼지속년수 12: 자아존중감 13: 대처전략 14: 결혼만족도 15: 가족건강성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주말부부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변인은 가족건강성으로 나타났다($r=.62$). 즉 주말부부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가족건강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주말부부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말부부 아내의 결혼만족도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변인은 가족건강성으로 나타났다($r=.61$). 즉 주말부부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가족건강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주말부부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가족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주말부부를 대상으로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와 가족건강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말부부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7점 만점에 남편은 평균 5.12점, 아내는 4.96점으로 나타나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부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변인은 자녀수,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대처전략 사용정도 등으로 나타났으며, 주말부부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변인은 아내의 교육수준, 직업,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대처전략 사용정도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주말부부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중간 점수보다 높게 나타난 점은 바람직하게 생각되지만 주말부부라는 특수 상황이 부부관계에 민감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결혼만족도를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주말부부는 일반부부에 비해 주중 비동거 생활 양식으로 인한 생활비의 증가뿐만 아니라 사소한 어려움이 발생할 빈도가 높고, 또 아내가 육아와 자녀교육이라는 과제를 혼자 담당함으로써 오는 부담감 때문에 주말부부의 생활이 계속될수록 결혼만족

도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선행연구(김은경, 1999; Winfield, 1985)에서 주말부부의 갈등을 시사한 점으로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을 연관시켜 볼 때 주말부부의 결혼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주말부부 남편과 아내의 가족건강성은 5점 만점에 남편은 3.75점, 아내는 3.77점으로 가족건강성이 높게 나타났다. 주말부부 남편의 가족건강성에 유의한 변인은 주말에 이동하는 사람, 부부가 만나는 주기, 결혼지속년수,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대처전략 사용정도 등으로 나타났으며, 아내의 가족건강성에 유의한 변인은 아내의 교육수준, 종교유무, 직업, 주말부부로 지낸 기간, 주말에 이동하는 사람, 부부가 만나는 주기,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대처전략 사용정도 등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에서 주말부부 남편과 아내의 가족건강성이 높게 나타나 주말부부라는 새로운 가족형태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주말부부는 일반 부부에 비해 가족불안정성이 클 것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수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건강가족관점에서 볼 때 주말부부 남편과 아내의 가족건강성 역시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한 가족구성원의 전인적인 인간성은 가족의 정서적·관계적 기능을 통하여 발달될 수 있기 때문에(유영주, 2004b) 가족건강성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주말부부인 경우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이 제한적임을 고려할 때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주말부부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와 가족건강성의 관계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주말부부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도 높아져 결혼만족도와 가족건강성 간의 불가분의 관계를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주말부부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와 가족건강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를 두며, 앞으로 주말부부에 대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살펴보지 못한 부부간의 의사소통 유형이나 심리적 변인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주말부부와 일반

부부를 비교한 결혼만족도와 가족건강성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주말부부의 특성을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김경은, 정옥분(1998). 주말부부 어머니의 결혼적응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1), 35-49.
- 김은경(1999). 맞벌이 주말부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1), 25-43.
- 김태현, 박숙자(1992). 한국의 비동거 가족연구. *가족학논집*, 4, 45-74.
- 문숙재, 윤소영(2003). 맞벌이 주말부부의 생활시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213-220.
- 어은주, 유영주(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81-94.
- 어은주, 유영주(1997). 도시가족의 건강성 및 관련변인 연구 -자녀교육기 가족의 주부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269-285.
- 유계숙(2004). 건강가족요소에 관한 연구 -가족체계와 건강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25-42.
- 유영주(2001). *건강가족연구*. 서울: 교문사.
- _____(2004a). 건강가족 확산을 위한 실천적 과제. *한국가족관계학회 추계학술대회*, 3-11.
- _____(2004b). 가족강화를 위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개발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119-151.
- 옥경희(1999). 맞벌이 주말부부의 부모역할 갈등.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1), 45-66.
- 윤세은(2001).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아동정체감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숙(1999). 맞벌이 주말가족의 성격분석을 위한 시론.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1), 1-23.
- 이기숙, 손태홍(2004). *맞벌이 주말가족 연구*. 서울: 신정출판사.
- 정현숙(1997). 결혼만족도 연구와 척도의 고찰을 통한 새로운 연구방향과 척도의 모색. *대한가정학회지*, 35(1), 191-204.
- 조유리, 김경신(2000). 부부의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광주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2), 1-21.
- 지영숙, 이영호(1998). 한국가정의 건전도 측정을 위한 척도의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233-250.
- 채옥희(1998). *Commuter Marriage* 가정경영 실태와 문제. *대한가정학회지*, 36(9), 153-166.
- 최규련(1988). 한국도시부부의 결혼만족도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1995).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과 부부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6), 99-113.
- 최정혜(2002).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 및 대처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49-60.
- 최정혜(2004).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 및 가족건강성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2), 69-83.
- 최희진, 유영주(2003). 한국형 가족기능도 척도 개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3), 15-28.
- 한유미(2003). 주말부부와 일반부부의 자녀양육 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175-185.
- 허경옥(2003). 주말부부가계와 비주말부부가계의 객관적, 주관적 경제구조분석 및 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201-212.
- 허영숙(1993). 주말에 남편을 만나는 맞벌이 여교사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성례, 유영주(2001). 남편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건강가족연구*, 서울: 교문사, 423-461.
- Bowman, Marilyn. L. (1990). Coping efforts and marital satisfaction, measuring marital coping and its correlat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2), 463-474.

- Brigman, K. M. L., Schons, J., & Stinnett, N. (1986). Strengthens of families in a society under stress: A study of strong families in Iraq. *Family Perspective, 20*, 61-73.
- Bunker, B. B., Zubek, J. M., Vanderslice, V. J., & Rice, R. W. (1992). Quality of life in dual-career families: Commuting versus single-residence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399-407.
- Christensen, A. & Heavy, C. L., Layne, C. (1993). Gender and conflict structure in marital interaction;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16-27.
- Kim song-Chul (2001). Weekend couples among Korean professionals: An Ethnographpy of living apart on weekdays. *Korea Journal, 41*(4), winter, 28-47.
- Olson D. H. & DeFriar J. (2003). *Marraige and Families: intimacy, diversity and strengths*, McGraw Hill Co.
- Stinnet, N., & Sauer, K. H. (1979).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of strong families. *Family Perspectives, 11*, 3-11.
- Voydanoff, P. (1991). *Economic distress and family relations* 재인용, 유영주(2001), 건강가족연구. 서울: 교문사, 180.
- Winfield, F. E. (1985). *Commuter marriage: Living together, apar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4년 8월 10일 접수, 2004년 12월 15일 채택)